

아름다운 슬로시티 증도

이번 여름 우리 가족은 아빠의 휴가에 맞추어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로 하였다. 평소에 여름휴가는 바다에 가서 물놀이를 하며 즐겁게 보냈는데, 이번 휴가에는 평소에 잘 가보지 못한 곳을 여행하기로 했다.

아빠는 아빠가 태어난 곳인 전라남도 영암과 아빠가 고등학교까지 지내던 도시인 목포에 가보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다. 또 그 근처에 있는 여러 곳을 여행하는 것도 어떠냐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계획을 세워서 여행할 곳을 정했다. 아빠는 아빠의 고향에 가보고 싶어 하셨고, 내 동생 우현이와 나는 바닷가에 가서 물놀이를 하고 싶었다. 엄마는 먼 곳에 가는 만큼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이번 여름휴가를 남도 여행으로 정하였다. 일정은 일주일로 했고, 먼저 화순에서 소목장을 하시는 친척의 집에서 우유를 짜보고, 담양 죽녹원과 보성 녹차밭에 들르고, 엄마가 가보고 싶어 하셨던 강진의 정약용 유배길을 돌아본 뒤 아빠의 고향에 가기로 했다. 또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과 동생이 좋아하는 장보고 기념관에 가기로 하였다. 마지막에는 증도에 가서 여행하고 집으로 돌아오기로 하였다.

아빠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 갈 장소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나와 동생에게 주

어서 조금 살펴보았는데 내가 제일 기대했던 곳은 해수욕장이었다. 그런데 막상 여행이 끝나니 마지막 장소인 증도에서의 기억이 가장 멋지고 인상 깊었다.

신안군에는 1,004개의 섬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슬로시티다. ‘슬로시티’는 공해 없는 자연 속에서 그 지역에 나는 음식을 먹고, 그 지역의 문화를 공유하며, 자유로운 옛날의 농경시대로 돌아가자는 ‘느림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 운동이라고 한다. 이 슬로시티의 마크는 달팽이다. 달팽이의 등껍질 위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여져 있는 모양이다. 아마 달팽이들이 느리게 움직이는 모습에서 그런 것 같다. 우리 가족이 증도에서 제일 먼저 간 곳은 동생과 내가 좋아하는 해수욕장이었다. 우리가 간 우전해수욕장에는 사람이 별로 없고 조용했다. 그리고 물이 얇아서 우리 같은 아이들이 놀기 딱 좋은 바닷가이다. 여기서 동생과 나는 넓은 서핑보드를 가지고 재미있게 놀았다. 온 가족이 함께 놀아서 너무 즐거웠다. 저녁이 다 되어 물놀이를 마치고 짱뚱어 다리에 갔다. 짱뚱어가 많아서 짱뚱어 다리인줄 알았는데 짱뚱어는 보지 못했고 바닷물이 차 있었다. 저녁이면 물이 차고 아침에는 물이 없어진다는 것이 신기했다. 이 다리를 가족과 함께 건넜더니 다리 주변 물이 찰랑거리고 지는 해에 반짝거리는 모습이 참 예뻐다.

다음 날 아침에는 신안 갯벌생태관에 갔다. 그곳에는 증도에서 사는 계와 여러 가지의 새, 조개에 대한 설명과 슬로시티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증도에 그렇게 많은 생물들이 살 줄 몰랐다. 그리고 어젯밤에 가서 물이 차 있던 짱뚱어 다리에 물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러 갔다. 진짜로 물이 빠져 있었다. 너무 신기했다. 엄마랑 나랑 동생은 신발

을 벗고 갯벌에 들어가 보았다. 밟아 보니 느낌이 부드러웠다. 거기에서 나랑 동생은 계를 잡았는데 흰발농게였다. 작고 귀여웠는데 갯벌에서 나와 수도에서 발을 씻을 때 도망가버렸다. 갯벌에 놓아주려고 했는데 배수관에 들어가 버려서 걱정되고 아쉬웠다.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 네모난 연못 같은 것이 아주 많이 있었다. 아빠가 그곳을 태평염전이라고 하셨다. 그런 곳에서 소금을 만들 줄 몰랐다. 그런데 염전은 매우 넓어서 차로 달리는 동안에도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다. 신기했다.

그곳을 지나 우리는 소금박물관에 갔다. 그 근처에서 소금을 뿌린 소금아이스크림을 팔았다. 진짜 아이스크림에 소금을 뿌려주었다. 참 맛있고 신기했다. 소금박물관 안에는 소금으로 만든 작품과 소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천일염에 대한 내용도 많았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탬프 활동을 했는데 너무 재미있었다.

너무 덥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가보고 싶었던 해송 숲길은 가지 못했다. 이 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길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해송 숲길은 가보지 못했지만 증도에서의 추억은 정말 아름답고 멋졌다. 바다는 반짝반짝 빛나서 아름다웠고 파란 하늘에 구름이 뭉게뭉게 있는 것이 그림 같았다. 또 우리가 먹는 소금을 만드는 염전을 실제로 보아서 신기했다. 증도는 우리 집에서 굉장히 먼 곳이지만 다시 여기 온다면 못 가보았던 해송 숲길을 꼭 걸어보고 싶다. 정말 멋진 여름휴가였다.

신민서

안양 해오름초등학교 3학년